

News

더 쌓기도, 뉘두기도...은행 '총당금 딜레마'

한국경제

5대 은행 작년 적립한 총당금 2.8조원으로 전년比 76% 급증, 대출 손실 대처능력도 역대 최고

총당금 늘면 배당 감소 불가피, 금융지주 "주주환원 한계" 고민

금리인하, 기업대출이 가계대출보다 인하속도 느리다

아시아경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대출을 포함한 기업대출 금리 인하 속도가 가계대출 금리보다 훨씬 느린 것으로 나타남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중소기업 지원 금융 대책을 쏟아내지만, 금리 측면에선 상대적으로 소외된 모습

영국서도 서브은행이라는데...은행판 뒤흔들 '인터넷뱅크' 나올까

이데일리

금융당국, 은행 경쟁력 방안 TF 꾸리고 킥오프, 스몰라이선스·챌린저뱅크, 추가 인뱅 인가 검토

영국식 챌린저뱅크 사례 주로 참고할 듯, 전문가 "과점 깨기엔 역부족...챌린저뱅크도 서브은행 수준"

카뱅, 주담대 출시 1주년 맞아 '갈아타기' 고객에게 최대 0.6%p 금리 할인 혜택

세계일보

카카오뱅크, 주담담보대출 '갈아타기(대환)' 고객에게 최대 0.6%포인트의 금리 할인 혜택 제공

카카오뱅크, "다수 고객들이 금리 할인 혜택을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역대급 실적 보험사들, 25일부터 車보험료 인하

동아일보

주요 손해보험회사들이 25일부터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시작

보험사들이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는 비판 제기, 연내 자동차보험료 추가 인하 가능성도

보험사, 당국 질타에 채권 순매수로 전환했지만...지속성은 불투명

아주경제

올해 저축성 지급보험금 12조, 조기·만기상환액 4조6천억

일회성 그칠듯..."채권 매도 외 뾰족한 대안 없다"

IPO 훈풍에 장외시장도 온기... 이달 거래대금 두배 늘어

파이낸셜뉴스

K-OTC의 이달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76억원, 지난달에 비해 130% 가까이 늘음

중소형 5개 종목이 '따상'을 이어가면서 한 발 앞선 투자에 나서기 위한 것으로 보임

증권사 월급통장 나올까...금융당국, '법인지급결제' 허용 검토

뉴스1

은행 제도 개선 TF에서 증권사 법인지급결제 허용 방안 논의

은행의 '투자일임 허용'과 증권사의 '법인지급결제 허용' 맞교환 가능성도 제기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